



리서치센터 리포트  
바로가기

## 투자심리 개선되며 상승

엔비디아, 긍정적 실적 및 가이드스 공개  
한국은행, 기준금리 3.0%로 2연속 인상

### 주요 지표 일간 변동

| KOSPI               | KOSDAQ            | KOSPI200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6,912.37pt (+1.53%) | 837.65pt (+1.30%) | 1,088.61pt (+1.63%) |
| 달러-원 환율             | 韓 10년물 국채 금리      | S&P500 선물           |
| 1,380.60 원 (-5.7 원) | 4.3020% (+1.4bp)  | 7,712.50pt (+0.29%) |

참고: 발간 시각 기준

자료: KRX

### 주요 수급 동향

|     | KOSPI     | KOSDAQ   | KOSPI200 선물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
| 개인  | -19,149 억 | -1,484 억 | +556 억      |
| 외국인 | +1,524 억  | +890 억   | +14,619 억   |
| 기관  | +1,776 억  | +613 억   | -15,310 억   |

참고: 발간 시각 기준

자료: KRX

### KEY DRIVER

- 금일 국내 증시는 AI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상승했습니다. 오늘 새벽 실적을 공개한 엔비디아는 전년보다 두 배 넘는 분기 매출액을 발표했습니다. 또한 강력한 고객 수요를 언급하며 2028 회계연도 매출이 전년 대비 약 70%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반도체 호황 지속 기대감에 국내시장은 강세를 보였지만,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상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제한적이었습니다. 이날 KOSPI는 1.53%, KOSDAQ은 1.30% 올랐습니다. KOSPI 거래대금은 약 22.5조원, KOSDAQ은 약 5.2조원을 기록했습니다.(KRX 기준)
- 외국인은 KOSPI를 약 1천억원 순매수했습니다.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매수했고,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도했습니다. 반면, 기관은 KOSPI를 2천억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. 기관은 삼성SDI와 삼성전기를 매수했고, SK하이닉스와 현대차를 매도했습니다.
- 업종별로 살펴보면, 엔비디아의 가이드스를 통해 성장성이 확인되며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. 미국이 외국산 전력망 장비를 퇴출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현지 공장을 둔 한국 전력기기·ESS 업체들이 반사수혜 전망으로 상승했습니다. 무기 수출 기대감에 방산주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. 반면, 금리 인상에 따른 내수 소비 둔화 우려로 소비재가 하락했습니다. 자동차, 바이오 업종이 약세를 기록했습니다.
- 주요 종목 중에선 HD현대일렉트릭(+12.01%), 삼성SDI(+10.27%), SK하이닉스(+2.49%)가 올랐고, 농심(-6.97%), 기아(-4.03%), LG생활건강(-4.02%)이 내렸습니다.

#### Compliance Note

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경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.